

일개 도시 대학생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융합적 요인 - 생활스트레스 중심으로 -

하태희
대구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Convergence Factors Affecting Aggression of College Students in a City - Focusing on Life Stresses -

Ha, Tae Hi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aegu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D시에 재학 중인 대학생 262명이었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9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이었다. 연구도구는 대학생생활스트레스 도구와 공격성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자료분석은 IBM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생활스트레스는 학업관련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격성은 성별($t=4.43, p<.001$), 전공($F=13.66,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대학생의 공격성은 대인관계 문제($r=.49, p<.001$), 학업 문제($r=.34, p<.001$), 경제 문제($r=.34, p<.001$), 장래 문제($r=.35, p<.001$), 가치관 문제($r=.31, p<.001$)와 각각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학생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대인관계 문제, 자연계열 전공, 학업 문제로 이들 요인은 공격성을 30% 설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의 정도 및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대학생의 공격성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구성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주제어 : 대학생, 공격성, 대인관계 문제, 학업 문제, 경제적 문제, 장래 문제, 가치관 문제

Abstract This study was examined the influences of life stress on the aggression of college students. For this purpose 262 college students in Daegu completed the related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5 to September 7, 2017.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IBM SPSS 25.0.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 1) The life stress of the subject was the highest in study problem. 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ggression according to gender($t=4.43, p<.001$) and major($F=13.66, p<.001$). 3) The aggress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interpersonal problem($r=.49, p<.001$), study problem($r=.34, p<.001$), economic problem($r=.34, p<.001$), future problem($r=.35, p<.001$) and value problem($r=.31, p<.001$). 4) The factors affecting to aggression were interpersonal problem, science and engineering, and study problem, and these factors accounted for 30% of aggression. Through this study, it was possible to grasp the degree of life stress and the influencing factors of aggression of college students. And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program for the management of aggression of college students.

Key Words : College student, Aggression, Interpersonal problem, Study problem, Economic problem, Future problem, Value problem

*Corresponding Author : Ha, Tae Hi(hth1427@daegu.ac.kr)

Received March 28, 2019

Revised April 26, 2019

Accepted May 20, 2019

Published May 28, 201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공격성은 분노, 화, 증오와 같은 부정적 감정에 따른 강압적이며 자신 또는 타인에게 상처나 고통을 주려는 의도로 언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성향이나 동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1,2], 이러한 의도된 행동이나 언어 및 동기는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적인 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3]. 즉,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각종 생활상의 문제들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인식할수록 공격성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대학생 시기는 발달과정 상 후기 청소년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자기 정체성 확립을 통하여 자신의 장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에 직면하여 삶의 가치와 목표를 성찰하고 결정하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통한 친밀성 확립이라는 발달과제를 완수해야 하는 시기에 해당된다[2]. 이러한 발달 과업의 수행과 아울러 현 시대의 대학생들은 학자금 마련 등의 경제적인 문제, 취업과 관련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고민, 취업 준비의 일환으로서 우수한 성적 유지와 관련된 학업 관련 스트레스, 폭넓어진 대인관계와 관련된 많은 문제 등 다양한 생활스트레스에 노출되어있는 것이 사실이다. 스트레스를 정상적인 발달단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와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때[4] 청소년기의 자아정체성 확립 및 초기 성인기의 친밀성 확립을 통한 부모로부터의 완전한 신체적·정신적 독립에 대한 부담감과 아울러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들과 관련된 생활스트레스를 함께 느끼고 있는 현시대의 대학생들은 어느 시기보다 스트레스에 취약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나친 스트레스는 그 자체로서 고통스러운 경험일 뿐만 아니라 공격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5].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의 증가는 공격성을 유발하며[6], 이러한 공격성은 사회적인 배척 경험이 많을수록[7], 사회적 위축이 심할수록[6], 부모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수록[8], 스트레스가 많을수록[9,10], 경제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느낄수록[11]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스트레스는 개인이 가진 자원이나 개인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여 개인의 안녕을 위협한다고 평가되는 인간과 환경의 특별한 관계이며[12], 이 중 생활스트레스란 인간이 내적 혼란과 외적 혼란으로 인해 경험하는

스트레스 중 외적 혼란을 의미한다[13]. Chon, Kim, & Yi[14]는 대학생활 시 경험할 수 있는 생활스트레스를 당면과제와 관련된 스트레스와 대인관계문제와 관련된 스트레스로 구분하여, 당면과제 스트레스로는 학업 문제, 경제 문제, 장래 문제, 가치관 문제를 하위요인으로 제시하였으며, 대인관계관련 문제로는 이성 친구, 동성 친구, 가족, 교수와의 관계에서의 스트레스를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생활스트레스를 대인관계 문제, 학업 문제, 경제 문제, 장래 문제, 가치관의 문제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생활스트레스의 정도를 알아보고, 이러한 생활스트레스와 공격성과의 관계 및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복합적 요인들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대학생활에서의 스트레스 및 공격성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공격성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자료로 사용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대학생활 스트레스의 정도를 파악하고 대학생 대상의 공격성 관리 방안 및 간호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시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으로서 연구목적, 익명성과 비밀보장 등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듣고 연구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배부한 300부의 설문지 중 270부(90%)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8명을 제외한 262명을 최종 분석 단위로 선정하였다.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한 예상 대상자 수는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의 크기 .15, 독립변수 7개일 때 최소 표본수는 153명 이상으로 제시되어 본 연구대상자 수는 필요한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대학생 생활 스트레스

대학생활 스트레스는 Chon, Kim, & Yi[14]가 개발한 대학생용 대학생생활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8가지 하위요인을 포함한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은 대인관계 영역과 당면과제 영역에서의 경험빈도와 중요도로 나뉘어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영역인 이성과의 관계(6문항), 교수와의 관계(6문항), 가족과의 관계(6문항), 친구와의 관계(5문항)의 문항을 대인관계 문제, 당면과제 영역인 학업(7문항), 경제(7문항), 장래(8문항), 가치관(5문항)을 학업 문제, 경제 문제, 장래 문제, 가치관 문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모든 문항은 부정적인 생활사건을 묘사하고 있으며, 4점 Likert 척도로서 0점 '전혀'에서 3점 '자주'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Cronbach's α 계수로 산출한 문항의 내적 일관성은 개발 당시 이성과의 관계 .88, 교수와의 관계 .83, 가족과의 관계 .85, 친구와의 관계 .76, 학업 문제 .75, 경제 문제 .85, 장래 문제 .81, 가치관 문제 .79였으며[14],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문제 .93, 학업 문제 .85, 경제 문제 .89, 장래 문제 .84, 가치관 문제 .77이었다.

2.3.2 공격성

공격성은 Buss & Durkee[15]가 개발한 'Buss-Durkee Hostility Inventory(BDHI)'를 한국어로 번안한 Rho[16]의 7가지 공격성 유형 중에서 언어적 공격성, 간접적 공격성, 폭행의 3가지를 통합하여 '공격성'으로 개념화한 Ko[17]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1문항의 4점 Likert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4점으로 역문항은 역산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 경향이 큰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계수로 산출한 문항의 내적 일관성은 개발 당시 .78이었으며[17], 본 연구에서는 .81이었다.

2.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편의 추출에 의해 D시의 4년제 4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9월 5일부터 3일간이었으며, 자료수집 방법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은 연구원들이 대학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한 후 설문지는 무기명 처리되며 연구목적외로만 이용되고 참여를 철회하고 싶은

경우 언제나 가능하며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15분 정도였으며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5.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2) 대상자들의 대학생생활스트레스, 공격성에 대한 서술적 통계는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3)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 생활 스트레스 및 공격성의 차이 분석은 수준이 두 집단인 경우 독립 t-검정, 세 집단 이상인 경우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후 유의한 경우 사후검정은 Bonferroni 방법을 이용하였다.
- 4) 대상자들의 대학생생활스트레스와 공격성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 5) 대상자들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순수 효과와 주요 요인을 찾기 위해 단계입력방식의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6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132	50.4
	Female	130	49.6
Grade	1st	103	39.3
	2nd	98	37.4
	3rd	37	14.1
	4th	24	9.2
Major	Humanities	73	27.9
	Sciences	172	65.6
	Arts	17	6.5
Economic status	High	14	5.3
	Middle	200	76.3
Religion	Low	48	18.3
	Yes	118	45.0
Residential type	No	144	55.0
	Home	133	50.8
Talking with	Living alone	78	29.8
	Dormitory	51	19.5
Talking with	Parents	41	15.6
	Friend	190	72.5
	Others	31	11.8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 50.4%, 여학생 49.6%였고, 학년은 1학년 39.3%, 2학년 37.4%, 3학년 14.1%, 4학년 9.2%였다. 전공은 인문사회계열 27.9%, 자연계열 65.6%, 예체능계열 6.5%였으며, 경제적 수준은 '중'이 76.3%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무교가 55.0%였으며, 거주형태는 자택 50.8%, 하숙 및 자취 29.8%, 기숙사 19.5% 순이었다. 또한,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상대로는 친구 72.5%, 부모 15.6%였다.

3.2 대학생활스트레스, 공격성의 정도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스트레스 및 공격성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대학생활스트레스 평균 점수는 대인관

계 문제 0.4점, 학업 문제 1.0점, 경제 문제 0.6점, 장래 문제 0.8점, 가치관 문제 0.7점으로 학업 문제가 가장 높게 나왔다. 공격성 평균 점수는 2.0점이었다.

Table 2. Degree of Life Stress and Aggression (N=262)

Variables		M±SD	Min	Max
Life stress	Interpersonal relationship	0.4±.50	0.0	2.7
	Study	1.0±.71	0.0	3.0
	Economy	0.6±.65	0.0	2.6
	Future	0.8±.62	0.0	2.6
	Value	0.7±.61	0.0	2.8
Aggression		2.0±.37	1.0	3.0

Table 3. Life Stress Tenden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62)

Characteristics	Categories	Interpersonal relationship			Study			Economy			Future			Value			
		M±SD	t/F	p (Bonferroni)	M±SD	t/F	p (Bonferroni)	M±SD	t/F	p (Bonferroni)	M±SD	t/F	p (Bonferroni)	M±SD	t/F	p (Bonferroni)	
Gender	Male	1.1±.37			0.9±.73			0.6±.69			0.9±.72			0.8±.62			
	Female	0.9±.35	4.43	<.001	1.1±.70	-1.59	.114	0.6±.62	1.02	.309	0.7±.49	2.15	.033	0.7±.61	0.86	.391	
Grade	1st(a)	1.0±.34			0.9±.67			0.5±.57			0.7±.54			0.6±.62			
	2nd(b)	1.0±.37			1.0±.74			0.6±.69			0.8±.60			0.7±.55			
	3rd(c)	1.1±.38	2.12	.098	1.3±.63	2.37	.071	0.8±.70	2.11	.099	1.1±.64	4.15	.007 (a<c)	1.0±.68	3.97	.009 (a<c)	
	4th(d)	1.1±.48			1.1±.83			0.6±.73			1.0±.81			0.9±.60			
Major	Humanities(a)	1.2±.30			0.8±.64			0.7±.69			0.8±.65			0.7±.66			
	Sciences(b)	0.9±.38	13.66	<.001 (a,c>b)	1.1±.72	6.63	.002 (a<b,c)	0.6±.63	1.59	.206	0.8±.59	5.85	.003 (ab<c)	0.7±.60	1.68	.189	
	Arts(c)	1.2±.37			1.3±.73			0.8±.70			1.3±.63			1.0±.48			
Economic Status	High(a)	1.0±.36			0.8±.76			0.4±.56			0.6±.67			0.6±.59			
	Middle(b)	1.0±.38	0.40	.672	1.0±.73	0.89	.411	0.5±.61	7.05	.001 (a,b<c)	0.8±.62	0.54	.583	0.7±.61	1.08	.342	
	Low(c)	1.0±.35			1.1±.63			0.9±.78			0.8±.61			0.9±.61			
Religion	Yes	0.5±.52			1.0±.71			0.6±.64			0.8±.66			0.7±.64			
	No	0.4±.47	1.67	.097	1.0±.72	-0.46	.649	0.6±.67	-0.52	.605	0.8±.59	-0.11	.916	0.8±.59	-0.47	.636	
Residential type	Home(a)	1.0±.36			1.0±.68			0.6±.68			0.8±.58			0.7±.61			
	Living alone(b)	1.0±.41	1.91	.150	1.2±.76	3.88	.022 (b>c)	0.7±.60	0.39	.681	0.9±.68	2.98	.053	0.8±.58	1.07	.346	
	Dormitory(c)	1.1±.34			0.8±.68			0.6±.68			0.7±.61			0.7±.65			
	Parents(a)	0.4±.47			0.9±.70			0.5±.55			0.7±.51			0.6±.60			
Talking with Friend	Friend(b)	0.4±.47	0.91	.404	1.0±.71	0.48	.622	0.6±.65	1.70	.184	0.8±.61	3.61	.029 (a<c)	0.7±.59	3.55	.030 (a<c)	
	Others(c)	0.5±.68			1.0±.79			0.7±.77			1.1±.77			1.0±.73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스트레스 정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스트레스의 정도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대인관계 문제는 성별($t=4.43, p<.001$), 전공($F=13.66,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전공에 있어서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다른 계열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경향이 있었다. 학업 문제는 전공($F=6.63, p=.002$), 거주 형태($F=3.88, p=.022$)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인문사회계열이 다른 계열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보다 자취나 하숙을 하는 학생들의 스트레스 경험 정도가 높았다. 경제 문제는 경제적 수준($F=7.05,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경제적 수준이 '하'인 학생의 스트레스가 높았다. 장래 문제는 성별($t=2.15, p=.033$), 학년($F=4.15, p=.007$), 전공($F=5.85, p=.003$), 속마음 얘기 상대($F=3.61, p=.029$)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여학생보다 남학생, 학년별로는 3학년, 전공별로는 예체능 계열일 경우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속마음 얘기 상대가 부모인 경우의 스트레스가 가장 낮게 보고되었다. 가치관 문제는 학년($F=3.97, p=.009$), 속마음 얘기 상대($F=3.55, p=.03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3학년의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으며, 속마음 얘기 상대가 부모일 경우 스트레스가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격성 정도

Table 4. Aggress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62)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t or F	p Bonferroni
Gender	Male	2.1±.37	4.43	<.001
	Female	1.9±.35		
Grade	1st	2.0±.34	2.12	.098
	2nd	2.0±.37		
	3rd	2.1±.38		
	4th	2.1±.48		
Major	Humanities(a)	2.2±.30	13.66	<.001 (a,c>b)
	Sciences(b)	1.9±.38		
	Arts(c)	2.2±.37		
Economic status	High	2.0±.36	0.40	.672
	Middle	2.0±.38		
	Low	2.0±.35		
Religion	Yes	2.0±.41	0.56	.580
	No	2.0±.34		
Residential type	Home	2.0±.36	1.91	.150
	Living alone	2.0±.41		
Talking with	Dormitory	2.1±.34	2.00	.137
	Parents	1.9±.36		
	Friend	2.0±.36		
	Others	2.0±.45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격성의 정도는 Table 4와 같다. 공격성은 성별($t=4.43, p<.001$), 전공($F=13.66, p<.001$)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공격성이 높았으며, 전공별로는 자연계열 학생의 공격성 정도가 다른 계열에 비해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3.5 연구 변수간의 상관관계

연구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Table 5와 같다. 대상자의 공격성은 대인관계 문제($r=.49, p<.001$), 학업 문제($r=.34, p<.001$), 경제 문제($r=.34, p<.001$), 장래 문제($r=.35, p<.001$), 가치관 문제($r=.31, p<.001$)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Table 5.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262)

Variables	Life stress				Aggression
	IR	Study	Economy	Future Value	
	r(p)	r(p)	r(p)	r(p)	r(p)
IR	1.00				
Study	.73 (<.001)	1.00			
Life stress	Economy	.69 (<.001)	.54 (<.001)	1.00	
	Future	.57 (<.001)	.60 (<.001)	.55 (<.001)	1.00
Value	Economy	.60 (<.001)	.53 (<.001)	.53 (<.001)	.56 (<.001)
	Future	.60 (<.001)	.53 (<.001)	.53 (<.001)	.56 (<.001)
Aggression	.49 (<.001)	.34 (<.001)	.34 (<.001)	.35 (<.001)	.31 (<.001)

IR: Interpersonal relationship

3.6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6과 같다. 대상자의 공격성을 예측하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독립변수인 대인관계 문제, 학업 문제, 경제 문제, 장래 문제, 가치관 문제는 모두 공격성과 상관관계가 있어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였고, 일반적 특성 중 공격성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성별, 전공을 예측변수로 투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 특성 중 성별과 전공은 명목 변수로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 입력 및 분석하였다. 변인 간의 다중공선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가 .67~.83으로 0.1이상으로 나타났고, 분산 팽창 요인(VIF)도 1.20~1.50으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기상관성 검정을 위한 Durbin-Watson 검정 결과 1.84로 나와 잔차들 간의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5.04, p<.001$). 대상자의 공격성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은 일반적 특성 중 전공이었고, 생활스트레스로는 대인관계 문제와 학업 문제로 나타났다. 즉, 대상자의 공격성은 대인관계 문제의 영향을 받아 대인관계 문제가 클수록 공격성이 증가하며, 자연계열의 공격성이 다른 계열보다 공격성의 정도가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 문제가 공격성에 영향을 주어 학업 문제가 클수록 공격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은 공격성을 30% 설명하였으며, 이 중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대인관계 문제($\beta=.30, p<.001$)였다.

Table 6. Factors Influencing on Aggression (N=262)

Predictors	B	SE	β	t	p	Tolerance	VIF
IR	.23	.05	.30	4.79	<.001	.67	1.50
Sciences	-.21	.05	-.26	-4.62	<.001	.83	1.20
Study	.13	.03	.24	3.88	<.001	.70	1.43
Adj. $R^2=.30(F=15.04, p<.001)$							

IR: Interpersonal relationship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생활스트레스가 대학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들이 경험하는 생활스트레스는 학업 문제, 장래 문제, 가치관 문제, 경제적 문제, 대인관계 문제의 순으로 대상자인 대학생이 경험하는 생활스트레스의 종류 중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의 연구[18]와는 일치하였으며, Kong & Kang의 연구[19]에서 대인관계 관련 스트레스 정도가 가장 낮게 나온 결과와는 부분적인 일치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대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이나 시험 및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반면 대인관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대상자들의 공격성 정도는 2.0점으로 나왔다. 이는 초등학교 6학년 대상의 Shin의 연구[8]에서 2.5점, 30대 이상의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Lee의 연구[10]에서 1.8점으로 나온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청소년기 이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공격성의 정도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생활스트레스의 정도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대인관계나 장래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3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장래 문제나 가치관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별로는 자연계열이나 인문사회 계열보다는 예체능 계열의 학생들이 학업 및 장래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인식하는 경제적 수준별로는 경제적 수준을 '하'로 인식하는 학생이 경제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 역시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형태별로는 하숙이나 자취 등 혼자 생활하는 학생이 기숙사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학생들보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속마음 이야기를 주로 이야기하는 상대가 부모일 경우 장래 문제나 가치관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Kong & Kang의 연구[19]에서는 대인관계 문제, 장래 문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의 결과와는 차이를 나타내어 이에 대해 추후 예측되는 외생변수 통제하의 반복 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결과와의 비교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대학생활의 특성 상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공 중심의 심화된 교육과정이 진행되며 이와 더불어 3학년 경부터는 전공분야를 포함하여 졸업 후 앞으로서의 자신의 삶이나 진로에 대한 목표 및 계획을 구체화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장래 및 가치관에 대한 고민으로 인해 3학년이라는 시기는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여진다. 또한 전공계열별 스트레스 정도를 보았을 때 예체능계열 학생들의 학업 및 장래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다른 계열 전공자들에 비해 높은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전공과 관련된 장래 계획 및 이에 따른 학업 지속 여부에 대한 고민을 예체능 전공자들이 다른 계열들에 비해 많이 하고 있을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거주형태로는 스스로의 자율적인 생활태도 및 습관의 조율이 요구되어지는 자취나 하숙과 같은 혼자 생활하는 환경 속에서 학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또한 부모와 대화를 주로 하는 학생들이 장래 문제나 가치관 문제를 덜 고민하는 경향을 볼 때 대학생에게 있어서 부모는 인생의 좋은 모델로서 가치관 확립이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정신적인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대상자의 공격성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Lee, Kim, & Kim의 연구 [20]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전공에 따른 공격성의 차이가 있어 자연계열 학생들의 공격성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자연계열의 특성 상 진로의 명확성 및 상대적인 취업 용이성 등의 현 국내 상황을 감안해볼 때 자연계열 학생들의 심리적인 부담감이 다른 계열에 비해 덜한 경향이 있고 이러한 경향이 공격성의 정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다섯째, 대상자의 공격성을 예측할 수 있는 영향 요인은 대인관계 문제, 자연계열 전공, 학업 문제 순으로 대인관계 문제가 가장 결정적인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결정 요인 중 자연계열 전공은 음의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여 자연 계열이 낮은 공격성의 수준에 영향을 미쳤다. 대학생의 타인에 대한 공감 정도가 클수록 공격성향은 감소하며 [21], 사회적 위축이나 또래와의 관계에서의 소외감은 공격성을 증가시킨다 [7,22]. 타인과의 원활한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감을 통한 서로간의 이해가 필수적이고, 이러한 공감적 이해가 되지 않으면 관계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사람들간의 관계에서 반복된다면 사회적인 위축감에 시달릴 것이다. 또한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는 공격성을 내재화할 경우 일어나는 자살사고와도 관계가 있어 대인관계적 문제를 크게 느낄수록 자살사고의 정도도 증가한다 [23].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보았을 때 공감의 결핍으로 인한 대인관계의 문제는 결국 타인이나 자신을 모두 공격할 수 있는 성향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생활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 분석에서는 대인관계 문제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온 반면, 생활스트레스가 공격성에 영향을 준 정도에 대한 분석에서는 생활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대인관계 요인이 공격성의 가장 주된 영향요인으로 나온 연구결과를 볼 때 학생들이 다른 현실적인 문제들에 비해 대인관계적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공격성에 대한 주된 영향 인자로 작용하고 있을 만큼 대학생들의 대인관계적 문제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의 대인관계 관련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스스로의 자기인식이 필요하고, 대인관계능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공격성의 관리가 가능함을 제시하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의 공격성에 대한 영향요인 중 학업과 관련된 문제는 대학생 대상의 So & Oh의 연구 [24]에서 뿐만 아니라 중학생 대상의 Kim & Choi의 연구 [11]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처럼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연령을 불문하고 공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된 영향 인자로서 국내의 과열된 입시 경쟁의 분위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업 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는 자신과 타인, 이들이 접하고 있는 환경을 파괴시킬 수 있는 공격성 발현의 예방적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이상에서의 본 연구 결과 및 선행연구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이 경험할 수 있는 생활스트레스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그들의 공격성을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공격성의 주된 영향 인자인 대인관계 문제 및 학업 관련 스트레스의 관리를 위해 대인관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대학생의 전공적합성을 살린 실질적인 학업적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후기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대한 간호교육을 통하여 대학생들의 자기인식 및 건강한 성인으로의 전환에 있어서 전문조력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공격성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 있어서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그러나 대상자들의 학년, 전공계열 별 분포의 편중성 및 연구방법 상 횡단적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해 연구결과의 일반화나 종단적 연구에서와 같은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REFERENCES

- [1] E. Aronson. (1992). *The social animal*. New York: Freeman & Company.
- [2] H. S. Kim. (2019).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Hakjisa Medical.
- [3] S. B. Tunick. (1997). *The effects of expectancy on stress-induced aggression..* Doctoral dissertation. Kent State University.
- [4] L. Chandler. (1987). *Childhood stress: teacher's role*. Eric Document, No. Eds. 285-369.
- [5] D. G. Byrne & J. Mazanov. (2003). Adolescent stress and future smoking behavior - A prospective investigation.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54(4), 313-321.
- [6] W. S. Lee. (2018).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social withdrawal on satisfaction with life: with emphasis on the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8(3), 75-108.

- [7] H. K. Shin & S. Y. Lee. (2016).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displaced aggression of university student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anger-i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exclusion. *Korean Youth Research Association*, 23(10), 259-285.
- [8] S. J. Shin. (2006). *The relationship among internet game addiction, the aggression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Daejeon.
- [9] Y. H. Kim & M. J. Kwon. (2018). Convergence factors affecting aggression of depressed adul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1), 309-315.
- [10] Y. J. Lee. (2017). *The mediating effect of the cognitive emotional regulation strateg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events stress and aggression in married women*. Master's thesis. Yongmoon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Psychology, Seoul.
- [11] D. K. Kim & Y. J. Choi. (2012). A study on relation between juvenile stress types and aggression, and mediation effect of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6), 249-268.
- [12] R. S. Lazarus & M. Folkman. (1984). *Coping and adaptation*. The handbook of behavioral medicine, 282-325.
- [13] K. K. Chon & K. H. Kim. (1991). Development of the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a control theory approach.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0(1), 137-158.
- [14] K. K. Chon, K. H. Kim, & J. S. Yi. (2000). Development of the revised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5(2), 316-335.
- [15] A. H. Buss & A. Durkee. (1957). An inventory for assessing different kinds of hostil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 343-349.
- [16] A. Y. Rho. (1983). *The effects of assertive training on the reduction of aggression of aggression and anxiety in juvenile delinquent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17] Y. I. Ko. (1994). *Relationship between anger expression style and depression and aggression in college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 [18] K. H. Kim. (2014). *Analysis of moderated effects of acceptance and committed action in the relation between college life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 [19] M. Kong & Y. J. Kang. (2012). A study on the influence of college life stresses on the mental health of college students-focus on the college of Pyongtaek City.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19(1), 1-22.
- [20] E. J. Lee, Y. Y. Kim, & B. J. Kim. (2010). The relation between narcissistic personality and psychopathy: the mediating effects of aggression.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5(3), 447-468.
- [21] M. S. Chung. (2012). A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balanced emotional empathy scal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3(4), 1781-1797.
- [22] J. R. Eom & M. Y. Nam. (2018). The convergence effects of on adolescent depression on aggression by gender difference.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2), 193-202.
- [23] J. Y. Kim.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stress and suicidal ideation among university student-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life-satisfaction. *Journal of Public Welfare Administration*, 25(1), 1-26.
- [24] Y. H. So & J. W. Oh. (2008). The influence on participation degree game and aggression on game addiction of physical educatio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33(2), 1193-12068.

하 태 희 (Ha, Tae Hi)

[경력]



- 1994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간호 학사)
- 2005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석사)
- 2012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2012년 9월 ~ 현재 : 대구대학교 간호

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노인정신간호, 영상영화치료
- E-Mail : hth1427@daegu.ar.kr